

余裕という気持ち

LEE DEOKMIN

教育学部 交換留学生 韓国

私が元々住んでいた所は韓国のデグという都市だった。ソウルほど大都市ではないが、韓国ではなかなか大きい所だと言えるだろう。道を歩くと高いマンションが並んでいたり、道路には車が行き交い、街の中に行くにあっちこっちに多くの人がいったりする、そういうところだった。

デグは私にとって縁が深い都市だ。それは何故ならば、そこは私が生まれたところで、また私が 10 年以上住んできたところだからだ。幼い頃、他の都市に住んだこともあるが、あまり長くはなかった。いまは何も覚えていない子供の頃、デグへまた帰ってきてから、幼稚園はもちろん大学までここで通うことになった。

デグに住んでいた時、私はここもそんなに悪くないなと思った。何度かソウルに行ってみたこともあった。大都市も悪くなかったが、人が多すぎて私には少し疲れる所だった。しかしデグは人がそんなに多くはなかった。そして少なくもなかった。ソウルのようにはないが、周りにスーパーもあるし、街もちょうどいいほどで、その他の面でも生活しやすいところだと思った。しかしデグにいる時も、時々「余裕」が欲しくなったりする時もあった。ソウルようではなかったが、木の代わりに高いマンションが並んでいることで私は疲れていた。空が見たくなって見上げると、空が建物の後ろに隠れていた。しかしそれもいつものことだったので私は何も考えないままそこで時間を過ごした。

2015 年、私は和歌山大学に交換留学生として行く機会を得ることになった。実は和歌山という所は私にはあまり親しくない場所だった。インターネットで調べると、大阪の下にある県、それぐらいしか和歌山に対するイメージはなかった。勿論、そんなに人が多くはないという理由で不満を持ったりはしなかった。むしろ日本語力が向上するだろうと思った。

時間が経ち、なんとか関西空港に着き、やっと和歌山に着いた。来たばかりのとき私が考えたのは「余裕」だった。多くの建物は低くて、夜の道は時々車が過ぎて行ったりするぐらいだった。夜の和歌山は本当に静かだった。初めはデグとは少し違う風景に驚いた。

しかし人間は異なる環境にも適応しやすい利点を持っている。和歌山にはまだ数か月しか住んでいないが、そのような風景ももう既に日常になり、今はまた違う魅力を私は楽しんでいる。朝になると木が風に揺れたり鳥たちが歌ったりするのを近くで聞ける。ベランダの向こうに低い建物の間に山が見える。道を歩き見上げると空が広がっていた。



最近はこんなことも思うようになった。「もしこのように暮らした後デグに帰るとまた親しさなんて感じられないではないのかな？」ということだ。勿論帰っても、また慣れてきてそこでまたなんとか

住んだりするのであろう。しかし、今はこの和歌山での余裕を私は逃したくない。韓国へ帰ったら、すべきことが沢山ある。単位を取るための授業は勿論、帰国したらすぐに就職活動の準備をしなければならぬ。私はまたコンクリートでできた高いマンションを通り過ぎ、建物に隠れて一部しか見えない空を見なければならぬかもしれない。いや、「しれない」ではなくてきっとそうであろう。



たまに下校の時空を見上げる。青い空を見ると思わず心が安らぐ。夜、部屋にいる時、ベランダの外を見る。黒い夜空を見るとまた気持ちいい。道の木も、たまに遠くへ飛んでゆく鳥たちも今は日常の一部になり、ただいるだけできもちよくなる。夜になると立ち寄ってくる虫たちも最初はうっとうしい存在だったけれど今は親しみが感じられる。これから9ヶ月、私はこれらを満喫したいと思う。

여유라는 기분

교환유학생(한국) LEE DEOKMIN

내가 원래 살던 곳은 한국의 대구라는 도시이다. 서울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안에선 나름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길을 가다 보면 높은 아파트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도로에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며, 도시의 중심가에 가면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곳이다.

대구는 나에게 있어서 인연이 깊은 도시이다. 이유를 두 가지 대자면 첫 번째는 내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10년 넘게 지내온 곳이기 때문이다. 아주 어린 시절 잠깐 다른 곳에서 지내기도 했지만, 그렇게 길진 않았다. 기억도 안나는 어린 시절, 대구를 잠시 떠났다 돌아오고 나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여기서 다니게 되었다.

대구에서 살면서 나는 이 곳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몇 번 서울에 간 적도 있었다. 대도시도 나쁘진 않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에게서는 조금 피곤한 곳이었다. 그에 비하면 대구는 지나치게 사람이 많지도,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도시였다.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슈퍼도 주위에 많이 있고, 번화가도 적당히 크고, 기타 생활하기 나쁘지 않은 환경이었다. 그렇지만 한 번씩 '여유'가 그리워지기도 하였다. 물론 서울 만큼은 아니었지만, 나무들 대신 고층 아파트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건 조금 피곤하였다. 길가에 가로수들이 심어져 있었지만 부족하였다. 고개를 들어보면 하늘은 건물들에 가려져 있었다. 그래도 워낙 익숙한 풍경이었기에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지냈다.

그리고 2015년 올해, 나는 와카야마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갈 기회를 얻었다. 사실 와카야마란 곳은 나에게 있어서 생소한 장소였기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다. 오사카 밑에 있는 현, 그것이 와카야마에 대한 나의 첫 이미지였다. 물론,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현이라고 딱히 불만 같은 건 갖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어 실력을 향상시킬 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어찌저찌 하여 나는 칸사이국제공항을 거쳐 와카야마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처음 오자마자 생각한 것은 '여유'였다. 건물들은 낮았고, 밤거리는 이따금 차들이 지나가기도 했지만 조용 하였다. 대구와는 다른 풍경에 조금 놀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어느 정도 지내다 보니, 그러한 풍경들도 이젠 일상이 되어서, 지금은 또다른 매력이 느껴지게 됐다. 아침이 되면 나무들이 흔들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바로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다. 베란다 쪽을 보면 낮은 건물들 너머로 산들이 보였다. 길을 가다가 고개를 들면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요즘은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 '이렇게 지내다가 대구에 돌아가면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물론 내년엔 돌아가게 되더라도, 분명히 다시 익숙해져서 지내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다. 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지금은 여기 와카야마에서의 여유로움을 놓치고 싶지 않다. 교환유학생 코스를 끝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할 일들이 분명 산더미처럼 쌓일 것이다. 학점을 따기 위해서 수업은 물론, 아마 돌아가자마자 취업 준비를 해야한다. 나는 다시 콘크리트 위 고층 아파트 사이사이를 지나가며 일부 가려진 하늘을 봐야 할 지도 모른다. 아니 그럴 것이다.

때때로 하교길에 하늘을 올려다 볼 때가 있다.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쾌해지게 된다. 밤에 방안에 있다가 바로 옆으로 고개를 돌려 베란다의 하늘을 볼 때도 있다. 까만 밤하늘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길가의 나무들도, 이따금씩 멀리 날아가는 새들도 지금은 나의 일상의 일부분이 되어서,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밤만 되면 찾아오는 귀찮은 벌레들도, 이제는 그저 정겹게 느껴지게 된다. 앞으로 약 9달 동안 나는 이것들을 만끽할 생각이다.